

8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7. 4.



목 차

I. 재정패널 조사의 개요	1
1. 조사 배경	1
2. 조사 목적	1
3. 기대효과	2
4. 조사설계	2
5. 현장 조사 방법	5
6. 조사 내용	6
II. 조사 결과	9
1. 조사 성공률	9
2. 실사 진행 과정	11
.....	12
3. 설문지 응답자	14
4. 소득공제증빙서류 수집	15
III. 재정패널 조사 자료의 특성	18
1. 조사 성공 가구 구성	18
2. 조사 성공 가구와 가중치	18
3. 조사 성공 가구 특성	20
IV. 가구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	30
1. 표본가구의 경제적 상황	30
2. 가구 조사결과 요약	35
V. 가구원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	40
1. 가구원 조사결과 요약	40
2. 가구원 인식조사	47

I. 재정패널 조사의 개요

1. 조사 배경

대표성을 띤 통계의 생산과 분석은 효율적인 정책형성과 학문적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여 왔다. 특히 패널조사를 통해 생산된 종단 조사 자료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횡단 조사 자료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패널조사의 장점을 인식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등)를 기획하여 장기간동안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널 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정책형성과 평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해 세금제도 개편시 정책효과 제시의 선행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하며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청년실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가성장 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정책의 성과 평가나 정부지출의 불합리성 및 국민부담의 개선을 위한 평가를 위해 활용 될 수 있는 자료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가장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세청 자료는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자 재정패널조사를 기획하였다. 재정패널조사의 조사항목은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가계의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2008년 1 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사업을 수행하여 2017년 3월 현재 10차년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2. 조사 목적

재정패널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안정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 부담

과 복지 수혜 정도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수집한다. 패널 데이터는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하는 조사 자료로서,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셋째, 조세 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조세 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기대효과

재정패널조사의 활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패널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를 활용하여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정책 개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 평가가 가능해진다. 기준의 기준년도 분석에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시간흐름에 따른 분석이 가능해지면 이를 통해 조세와 재정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관련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조세, 재정 관련 통계의 경우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 연구주기가 단기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국가통계에 준하는 패널 데이터가 종단면적으로 다양하게 생산되면 조세, 재정 관련 통계 인프라가 재편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넷째,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연구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조세, 재정분야의 경우 연구의 특성상 상당부분 데이터에 의존하는 계량적인 연구가 필수적인데 재정패널을 통해 데이터의 부재로 그동안 연구가 불가능했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학문과 정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4. 조사설계

가. 모집단 정의

재정패널 조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그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이다.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모집단에 포함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동거기간을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즉, 일반 가구란 1인 또는 1인 이상의 가족(친인척)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의 생활을 6개월 이상 지속하여온 가구를 의미하며, 가구원은 조사대상 가구에 6개월 이상 경제생활을 함께 하며 생활한 사람으로, 가정부 및 종업

원, 하숙생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6개월 이상 함께 동거하지 않은 가족 중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하여 비동거한 경우 혹은 해당 가구 소속되어 있으며 원양어선 및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가족은 기간과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나. 조사대상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대상은 1차년도에 구축된 전국(제주도 제외) 5,014가구와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 추출한 620 가구이다. 추가 추출한 가구는 1차년도 구축된 가구 중 2차년도 조사시점 당시 조사에 대한 강력 거절하였거나 추적에 실패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 할 수 없던 가구를 대신하여 추출한 가구들이며, 이러한 가구들을 포함한 5,634가구를 원표본 가구로 정의 하였다. 원표본 가구는 이사, 분가, 합가시에도 계속 추적하여 조사되는 가구로 조사 대상이 소멸할 때까지 추적한다. 원표본 가구의 가구원이 혼인, 취업 등의 사유로 분가한 경우에는 원표본 가구가 아니더라도 추적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가구는 분가가구라고 하며, 자연적인 가구 구성 변화로 인한 특성들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표본틀(sampling frame)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에서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중 통계청에서 외부 통계작성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90% 자료를 표집틀(sampling frame)로 이용하였다. 다만, 재정패널 조사의 최초 시작시점(2008년)과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작성 시점(2005년)간에 3년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모집단의 특성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있었다. 이점에 유의하여 표집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 단지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추가적인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라. 표본크기 설정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는 표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하여야 한다. 표본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모집단과의 표본오차는 감소할 수 있으나, 일정한 표본크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오차의 감소폭이 현저히 줄어 표본크기 증가의 효과가 감소한다. 또한 조사여건에 맞지 않게 표본수를 크게 설정 할 경우 무리한 조사 진행 등으로 인해 오히려 비표본 오차가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를 설정할 때에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며, 조사목적과 여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재정패널 조사는 적절한 유효 표본수를 설정하기 위해 본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2007년 예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연구목적과 정해진 예산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표본수는 5,000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본조사 수행시 5,000가구 조사를 목표로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며 조사하도록 설계하였다.

마. 원표본 구성

재정패널 조사의 원표본은 <표 I-1>과 같이 1차년도에 구축한 5,014 가구와 2차년도에 추가로 추출하여 구축한 620가구를 포함한 5,634가구이다. 2차년도에 추가 표본을 추출한 것은 재정패널 조사가 갖는 독특한 특징으로 이 시기의 조사 성공률(패널유지율)이 크게 하락한¹⁾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표 I-1> 재정패널조사 원표본 정의

구분	용어
1차년도 추출표본: 5014가구	1차년도 추출표본
2차년도 추가 추출표본: 620가구	2차년도 추출표본
원표본	1차년도 추출표본 + 2차년도 추출표본 (5,634가구)

2차년도 조사시점에서 조사 성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종단조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²⁾이다. 이는 추적 조사에 대한 조사대상자(1차년도 조사대상 가구)의 부담감으로 인한 응답거절, 가구 사정으로 인한 응답불가 사유 발생, 이사·이민·전화번호 변경에 대한 미고지 등에 의한 추적 실패의 사유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구들은 물리적으로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접촉이 되더라도 응답 거절이 강력하여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패널 조사에서도 2차년도 조사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였고, 총 620가구가 강력거절 또는 접촉 불가 상태로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즉각적인 표본 추가를 통해 대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즉각적인 표본 추가를 진행한 이유는 재정패널 조사의 주 연구 주제인 가구의 조세·재정 정보는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획단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어

1) 1차년도 구축된 5,014가구 중 2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4,396가구로 87.7%의 조사 성공률을 보였다.

2) 국내외 주요 패널조사의 2차년도 조사 성공률은 노동패널조사 87.6%, 미국 PSID 88.0%, 독일 GSEP 90.0%, 영국 BHPS 88.0% 수준이다.

렵고,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세 납부 유형별로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사 설계 당시 설정한 크기(5,000가구 이상)의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추가표본을 추출한다면, 가중치 보정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종단분석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차년도 조사부터는 추가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기존에 구축된 표본가구와 분가가구에 대한 추적조사만 진행하기로 하였다. 1차년도 표본 추출과 2차년도 추가표본 추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저가이드를 참고하기 바란다.

바. 분가가구

원표본가구에 속해 있던 가구원이 결혼이나 경제적 이유로 분가한 경우 해당 가구원을 추적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해당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를 분가 가구라고 정의한다. 분가 가구의 경우 원표본 추출법에 의거하여 추출된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종단 가중치가 부여되는 가구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가구 분리 현상으로 판단되어 횡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8차년도에 조사된 분가 가구는 2014년 6월 이전에 분가한 가구들로 총 434개의 분가가구가 조사되었다.

5. 현장 조사 방법

가. 실사 수행기관

8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의 현장 실사 수행기관은 2015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진행된 용역 입찰 공고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다. 입찰 결과 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Research International이 재정패널 조사의 실사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나. 조사방법

재정패널 조사는 조사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응답자가 심야에 귀가해 만나기가 어렵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유치 조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조사 도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종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다. 조사기간 및 조사 기준시점

8차년도 재정패널 조사는 2015년 5월부터 10월 첫 주³⁾까지 진행되었다. 재정패널조사의 상당수 문항들은 작년 한해(8차년도의 경우 2014년)의 상황을 묻고 있으며,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을 측정하는 질문은 2014년 1월~12월간의 1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저량(stock)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단, 가구원 설문지의 경제활동 상태는 조사 시작 시점인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6. 조사 내용

가. 설문지 구조

재정패널조사의 설문지는 가구용과 가구원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으며, 소득 및 지출을 주로 관리하고 있는 가구원 한 명이 응답하며, 가구원용 설문지는 만 15세 이상이며,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조사대상이 된다. 재정패널 조사 8차년도 설문지의 주요 설문 영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2> 설문지의 구조

가구 설문지	가구원 설문지
[표지] 가구 적격 여부 확인	[표지] 가구원 적격 여부 확인
가구 기본 현황	경제활동
주택, 종합부동산세,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유 현황	소득 및 지출 현황
가계 지출 현황	2014년 근로소득세 공제 현황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2014년 종합소득세 공제 현황
복지현황	인식 조사
자산 및 부채 현황	
근로장려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종합소득세환급금	
유가보조금	
출산(출산에 따른 비용 지출)	

3) 8차년도 현장 실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8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된 것과 비교해 약 1개월가량이 연장되었는데, 이는 6월 이후 불어 닥친 메르스의 여파로 가구 방문 연기 및 면접원 투입 시기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나. 가구 설문지

가구 설문지에서는 가구주를 응답자로 하여 가구 전체의 구성을 확인하고,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가계의 수입과 지출,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가구원들의 인적사항과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동산 자산과 부채, 그리고 지출과 복지 수혜내역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소비 지출 내역은 통계청 분류기준인 COICOP⁴⁾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가구단위로 발생하는 지출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 가구원 설문지

가구원 설문지는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가족 중 작년 2014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었거나 소득활동을 한 가구원이 조사대상이 되어 본인 명의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제도나 사회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응답하는 설문지이다. 가구원 설문지에서는 조사 시점인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상세히 조사하고, 연간소득과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의 급여와 지출액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소득세 납부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2014년 근로소득세 공제 현황을 조사하고, 종합소득자는 2014년 종합소득세 공제 현황을 조사하도록 구성하였다. 소득세 공제 현황은 신고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화 하고 있다.

라. 소득공제 현황

가구원 설문지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공제 현황은 조사시점인 2015년에 신고한 2014년 귀속 소득공제 내역을 응답하는 조사영역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공제금액,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8차년도 조사에서는 2015년 2월에 진행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하였다.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내역서에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공적연금 보험료, 기부금, 표준공제액 등에 대해서는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소득세환급금 지급절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표 I-3> 참조).

그런데 소득공제 현황을 조사하는 것에는 한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 조사 영역의 문항 대부분이 공제금액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 된 금액이기 때문에 회상 방식에 의해서는

4) 목적별 개인소비 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 유엔 통계 위원회에서 작성된 국민계정체계 및 ILO 등에서 권고하는 소비지출 분류체계

정확한 금액을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에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차년도부터 소득공제증빙서류 수집하도록 하여 정확한 소득공제내역이 조사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이렇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가구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8차년도 조사 기준 소득공제대상 가구원 중 약 65%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II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3> 8차년도(2014년 귀속) 소득공제내역 조사 문항

근로소득자	공적연금 보험료,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월세,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 기타 공제, 결정세액
종합소득자	공적연금 보험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투자조합출자 등, 표준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기타 공제, 성실사업자대상공제(의료비, 교육비), 결정세액

마. 8차년도 설문문항 특이사항

재정패널 조사의 설문문항은 매년 재검토하여 정교화 되거나 새로운 조사문항이 추가되고, 연구 수요가 적은 문항은 삭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차년도 조사 시작전에도 문항의 보완 및 신규추가 등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4>와 같다. 문항 변동에 대해서는 재정패널 사용자 안내서에 보다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표 I-4> 8차년도 변동 설문문항

가구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부부 문항 보강을 위한 주말부부사유, 주말부부 소비생활 문항 신규 추가 - 주택 공시가격 신규 조사 -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의 지역 조사 - 오토바이 응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규 문항 추가 - 기부분야 중 종교기관 기부 성격을 구분하여 조사 - 부채상환의 어려움 조사 구조 변경하여 조사(연체 발생을 중심으로) -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영향력에 대해 조사
가구원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보험 소득 삭제(조사하는 연간소득의 성격과 상이한 개념이며, 매년 응답빈도와 금액의 비율이 현격히 낮아 삭제) - 양도소득을 순소득과 순손실로 구분하여 조사 - 공적연금 미납부사유 조사 - 가입한 공적연금의 은퇴후 수급 예상 금액 조사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사용처를 세분화(전통시장, 대중교통)하여 조사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여부 문항 삭제(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 따라 문항 삭제) - 타인에 대한 신뢰를 조사하는 문항 삽입

II. 조사 결과

1. 조사 성공률

가. 원표본 조사 성공률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구축되었던 5,634개의 원표본 가구 중 8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모두 4,385가구로 원표본 조사 성공률은 77.8%이다. 이는 재정패널 조사가 소득과 자산, 세금과 같은 가구의 민감한 가계 상황을 조사하는 점과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할당된 표본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원표본 조사 성공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지역의 성공률이 85.9%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지역의 성공률이 70.6%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지방의 탈락률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탈락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표 II-1> 지역별 원표본 조사 성공률

(단위: 가구, %)

지역 ¹⁾	지역별 원표본 가구수	8차년도 조사성공 가구수	원표본 조사 성공률
전국	5,634	4,385	77.8
서울	1,280	904	70.6
부산	429	344	80.2
대구	314	252	80.3
인천	286	207	72.4
광주	199	168	84.4
대전	201	165	82.1
울산	153	120	78.4
경기	1,001	757	75.6
강원	185	159	85.9
충북	200	163	81.5
충남	221	180	81.4
전북	273	219	80.2
전남	262	224	85.5
경북	314	253	80.6
경남	316	270	85.4

주 : 1) 원표본 성공률은 추출 당시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지역별 성공 표본수는 2015년 실제 거주지역과 차이가 있음.

나.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

다음으로 조사대상 가구 중 '사망'과 '해외거주'와 같이 가구 자체가 소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표본 조사 성공률과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에는 비율 계산에 적용되는 분모의 수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표 II-2>와 같이 8차년도까지 사망이나 해외거주 가구로 소멸한 가구는 총 124가구로 조사 성공률 계산에 적용되는 대상 가구수는 5,510가구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 조사 성공률 계산방법

구분	계산법	8차년도 대상 가구수
원표본 조사 성공률	1차년도 및 2차년도 원표본 가구 전체를 분모로 함	5,634 가구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	원표본 가구 중 소멸가구(사망, 해외거주 등)를 분모에서 제외	5,510 가구

이렇게 산출한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은 전국 기준 79.6%로 원표본 조사 성공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을 살펴보면, 원표본 성공률과 다르게 전남 지역의 성공률이 89.2%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지역의 성공률은 71.7%로 원표본 성공률보다는 약간 더 높았으나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II-3> 지역별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 (단위: 가구, %)

지역 ¹⁾	지역별 유효 표본 가구수	8차년도 조사성공 가구수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
전국	5,510	4,385	79.6
서울	1,261	904	71.7
부산	416	344	82.7
대구	309	252	81.6
인천	279	207	74.2
광주	196	168	85.7
대전	194	165	85.1
울산	149	120	80.5
경기	985	757	76.9
강원	181	159	87.8
충북	193	163	84.5
충남	217	180	82.9
전북	263	219	83.3
전남	251	224	89.2
경북	304	253	83.2
경남	312	270	86.5

주 : 1) 원표본 성공률은 추출 당시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지역별 성공 표본수는 2015년 실제 거주지역과 차이가 있음.

나. 분가가구 조사 성공률

1차년도부터 발생한 분가가구 중 8차년도에 추적해야 할 분가가구는 457가구이었다. 그 중 20가구가 사망, 해외 거주 등으로 소멸하였고, 최종적으로 8차년도 조사에서 399개의 분가가구 조사에 성공하여 분가가구 조사 성공률은 87.3%로 집계되었다.

<표 II-4> 지역별 분가가구 조사 성공률

(단위: 가구, %)

지역	조사대상 분가가구수		조사성공 분가가구	8차년도 분가가구 조사성공률
	소멸 포함 가구수	소멸 제외 가구수		
전국	457	437	399	87.3
서울	86	84	79	91.9
부산	39	37	36	92.3
대구	29	28	24	82.8
인천	20	19	18	90.0
광주	27	27	26	96.3
대전	11	11	11	100.0
울산	19	18	17	89.5
경기	65	60	54	83.1
강원	16	14	11	68.8
충북	9	9	9	100.0
충남	15	15	12	80.0
전북	36	33	30	83.3
전남	22	20	19	86.4
경북	26	25	19	73.1
경남	37	37	34	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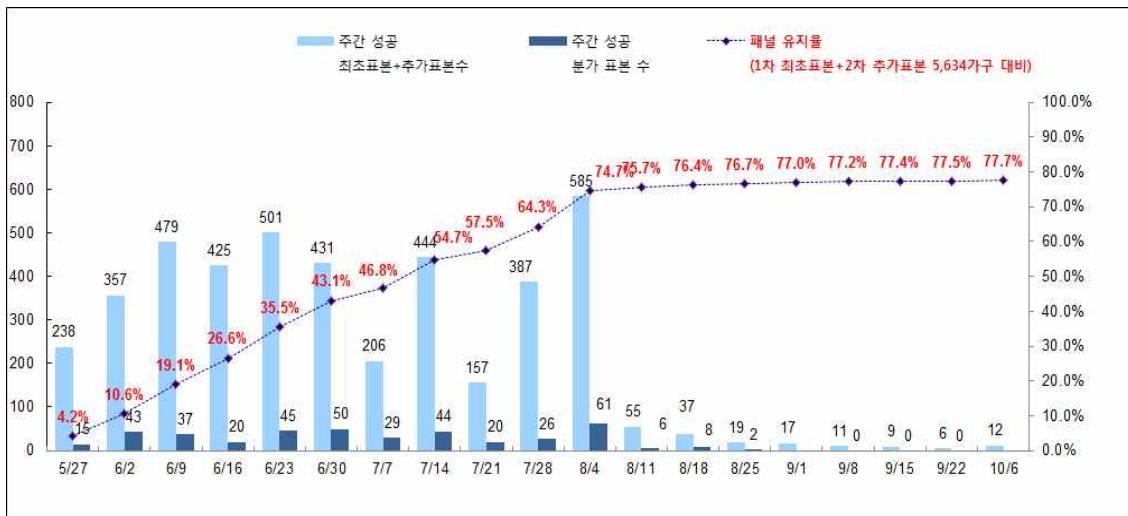
2. 실사 진행 과정

가. 주별 진행 상황

재정패널 조사의 실사는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었으며, 5월 한 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점을 감안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6월 이후부터 컨택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실사 초반인 5월에는 조사원의 사전 컨택 작업 위주로 실사가 진행되어 다소 낮은 진행률을 보였지만 6월에 접어들며 꾸준한 속도로 실사가 진행되었다. 다만, 메르스의 여파로 실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6월 이후 메르스 때문에 응답자 측에서 조사원의 가구 방문 연기를

요청했고, 확진자 발생 지역은 조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많은 수의 표본이 조사되는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사이의 진행 속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하였다. 8월 이후에 비교적 많은 가구의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실사 마무리가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졌다.

[그림 II-1] 8차년도 실사 진행 상황(원표본 조사성공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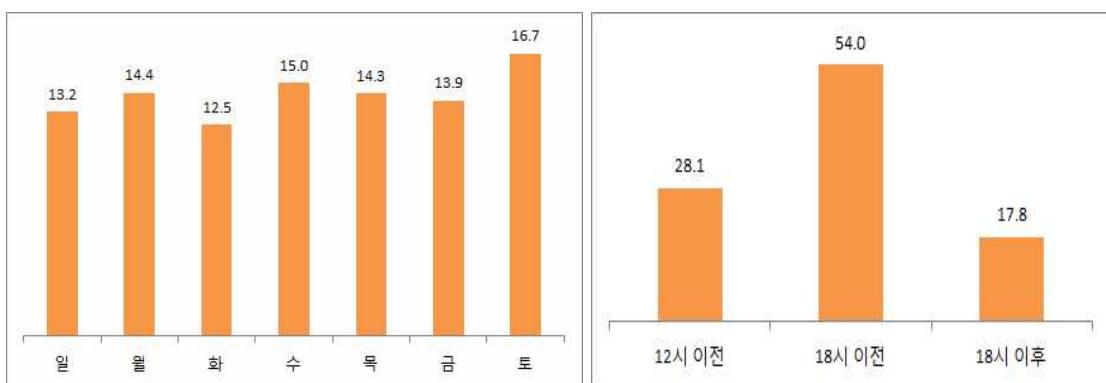


나. 조사 진행 요일 및 시간대 분포

조사 진행 요일은 전반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이 고르게 진행되었으며, 조사 시간대의 경우 12시~18시 사이가 5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늦은 시간인 6시 이후보다는 오전 시간대에 조사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그림 II-2] 조사 요일 및 시간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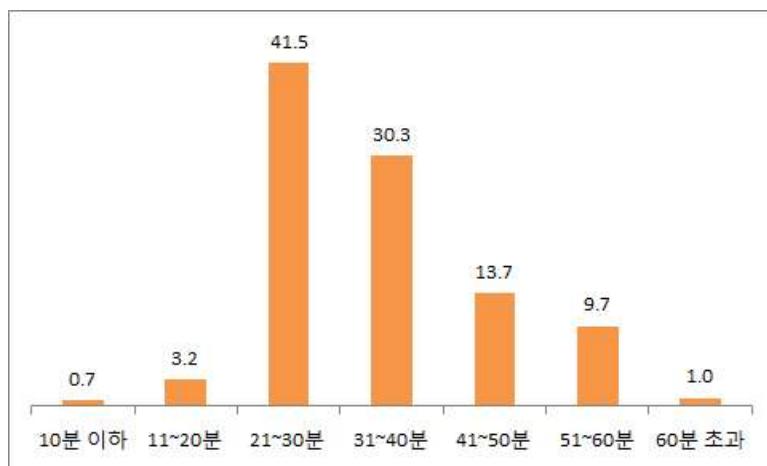


다. 조사 소요 시간

가구 설문지의 평균 조사 시간은 약 37.9분으로 지난 해 평균시간(37.7분)과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대별로는 '21~30분'이 41.5%로 가장 많았고, '31~40분'이 30.3%로 그 다음이었다.

[그림 II-3] 가구 설문지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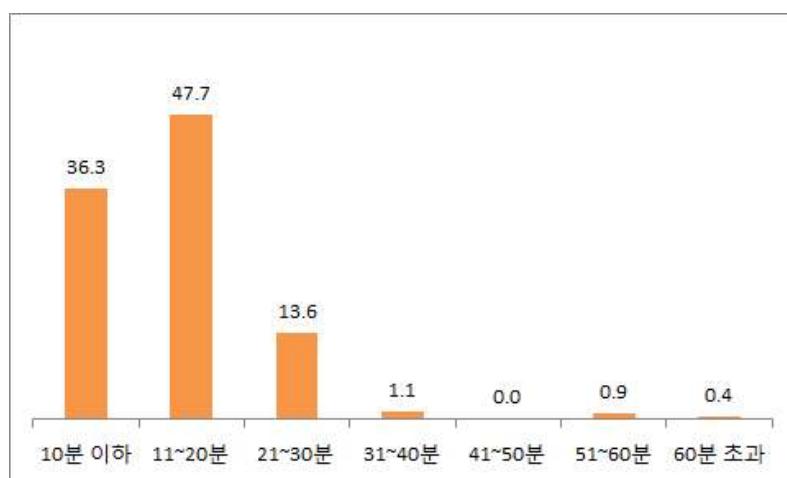
(단위: %)



가구원 설문지의 평균 조사 시간은 약 16.7분으로 나타나 7차년도 조사결과(16.4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원 설문지는 해당되는 가구원에게만 조사하고 가구 설문지에 비해 분량도 적기 때문에 인식조사 분량이 조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20분 내에서 모두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4] 가구원 설문지 소요시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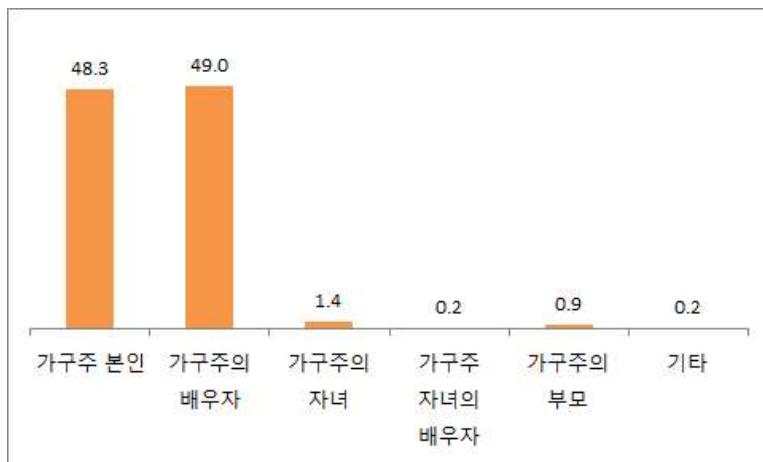
3. 설문지 응답자

가. 가구 설문

가구 설문은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원⁵⁾인지 판단한 후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가 응답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가구주의 자녀와 그 외 가구원들이 응답하기도 한다. 8차년도 조사 결과 가구주 본인이 가구 설문지에 응답한 경우는 48.3%이었으며, 가구주의 배우자가 응답한 경우는 49%, 그 외 가구원들이 응답한 경우는 2.7% 수준이었다.

[그림 II-5] 가구 설문지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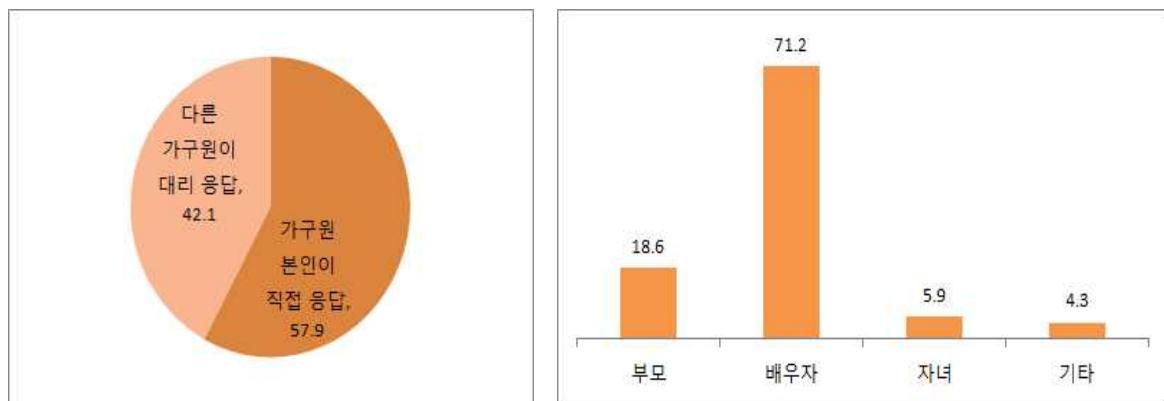
나. 가구원 설문

가구원 설문은 작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한 가구원이 대상이 되는데, 8차년도 가구원 설문에 응답한 가구원은 총 7,586명이었다. 이 가구원 설문지는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 가구원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가구의 특성에 따라 대리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⁶⁾가 있기 때문에 일부 문항에 한하여 대리응답을 허용하였다. 대리응답이 가능한 조사 문항은 경제활동 상황, 연간 소득,

- 5) 가구 설문지의 응답자는 가구주가 되도록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가구주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나 가구주가 응답을 거절한 경우 그를 대신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구 설문지를 응답한다.
- 6)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을 관리하는 가구원이나 타가구원 명의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가구원 등이 해당된다.

소득공제 내역 등 실태에 관한 문항이다. 단, 가구원 설문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응답하도록 설정한 문항들이 있다. 인식 조사 문항이 이에 해당되는데, 해당 가구원을 직접 만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설문지 유치나 전화 조사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해 가구원 본인이 반드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구원 조사를 실시한 결과 8차년도 가구원 설문지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응답한 경우는 57.9%이었으며, 소득자의 배우자 등 소득을 관리하는 타가구원이 응답한 사례가 42.1%로 나타났다.

[그림 II-6] 가구원 설문지 본인 응답 여부 및 대리 응답시 소득 가구원과의 관계
(단위 : %)



4. 소득공제증빙서류 수집

가. 증빙서류 수집 목적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소득자들의 소득공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원 설문 문항으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공제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영역의 문항은 각 항목별로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회상해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개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하여 조사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더욱이 8차년도의 조사 대상이 되는 2014년 귀속 소득공제내역의 경우 공제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일부 항목(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이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여 다수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공제내역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증빙서류의 수집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나. 수집 대상 서류

재정패널조사에서 수집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자의 과세표준화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명세서이다. 근로소득자는 2015년 1~2월 경에 근무처로부터 받은 2014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이 수집 대상이 되었고, 종합소득자의 경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가 진행되므로 이 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수집 대상이 되었다. 단, 방문판매나 보험모집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례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집 서류에 포함시켰다.

다. 소득공제증빙서류 수집 현황

1) 귀속연도별 소득공제증빙서류 수집 현황

재정패널조사는 가구를 기본 조사단위로 하지만 소득공제증빙서류는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별로 수집하기 때문에 전체 가구원 대비 수집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본 조사 연도별 소득공제증빙서류 수집 현황은 <표 II-5>⁷⁾과 같다.

<표 II-5> 가구원 기준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 현황

(단위 : 건,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체 가구원	6,919	7,095	6,981	7,216 ²⁾	7,298	7,380	7,559	7,586
제출 가구원 (비율)	734 (10.6%)	1,436 (20.2%)	1,596 (22.9%)	1,803 (25%)	1,858 (25.5%)	2,010 (27.2%)	2,162 (28.6%)	2,244 (29.6%)
근로소득자	639	1,223	1,345	1,516	1,544	1,651	1,785	1,876
종합소득자	97	213	252	289	316	364	378	377

주 : 1) 가구원 1명이 근로와 종합 소득 서류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출가구원의 총계는 근로와 종합소득 제출자 합계와 다를 수 있음.

2) 4차년도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가구원 조사대상이 된 가구원이 있어 데이터의 케이스 숫자와 차이가 있음.

1차년도에 수집된 증빙서류는 총 736건으로 734명의 가구원이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전체 조사대상 가구원 대비 10.6%의 수준으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가구원들이 많지 않

7) 소득공제증빙서류는 조사대상이 되는 귀속년도의 자료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의 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수집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은 편이었다. 조사 첫해인 만큼 면접원과 패널가구의 친밀감(rapport)가 형성되기 이전이고,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조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의 이유로 증빙서류 수집률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2차년도 이후부터는 점차 이런 거부감들이 줄어들면서 제출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8차년도에는 29.6%의 가구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 2,253건의 서류가 접수되었다. 덧붙여, 소득공제증빙서류는 한 가구에서 2개 이상 수집될 수 있으며, 한명의 가구원이 2개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서류 제출 건수와 제출 가구수, 제출 가구원 수는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데, 아래의 표에서 살펴보면, 2014년도 귀속 서류를 수집된 건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신고서류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총 2,163건이며, 이 중 근로소득 제출건수가 1,785건, 종합소득 제출건수가 378건이다. 제출 가구원수는 1,889가구 중 2,157명이다.

2) 8차년도 소득공제증빙서류 수집현황

8차년도 소득공제증빙서류 수집비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증빙서류를 제출한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는 총 1,928 가구로 전체 유효표본 가구 대비 증빙서류 수집율은 40.0%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조사에 성공한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근로소득자일지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수집율을 다시 산출하여 보면 2,958가구 중 1,928가구에서 서류 수집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수집율은 65.2%로 높아진다. 가구원을 기준으로 수집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이 3,064명이었는데, 이 중 서류를 제출한 가구원은 총 1,876명으로 61.2%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은 901명으로 이 중 377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수집율은 41.8%이었다.

<표 III-6> 8차년도 소득공제증빙서류 수집율

(단위 : 건, %)

구분		해당 case ¹⁾	제출건수	수집율(%)	[참고] 7차년도 수집율 ²⁾
가구	전체 유효표본 가구	4,819	1,928	40.0%	39.4%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958	1,928	65.2%	65.0%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	3,064	1,876	61.2%	60.4%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901	377	41.8%	42.3%

주 : 1) case 숫자는 가중치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치임.

2) 7차년도 수집율 괄호 안의 수치는 '수집 건수/해당 케이스 숫자'를 의미함.

III. 재정패널 조사 자료의 특성

1. 조사 성공 가구 구성

8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조사 성공한 가구 수는 4,819개로 1차년도에 추출된 원표본 중에는 3,870가구의 조사에 성공하였고, 2차년도 추출 원표본 중에는 515가구의 조사가 성공하였다. 2차년도 조사 이후 더 이상의 표본 추가가 없는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매년 불가피하게 원표본 가구의 마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차년도 추출 원표본에서 이러한 마모 증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표본의 마모를 보완하고자 분가가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여 표본수는 4차년도 이후 안정적인 추세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6차년도 조사 이후부터는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의 숫자가 114가구, 147가구, 180가구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총 조사 성공 가구 합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8차년도 기준 전체 조사 성공 가구에서 1차년도 원표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0.3%이며, 2차년도 원표본 가구의 비중은 10.7%, 분가가구는 3.7%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1> 조사 성공 가구 구성

(단위 : 가구, %)

조사 차수	전체		1차년도 원표본가구		2차년도 원표본가구		분가가구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1차년도	5,014	-	5,014	100.0	-	-	-	-
2차년도	5,039	100.0	4,396	87.2	620	12.3	23	0.5
3차년도	4,830	100.0	4,172	86.4	575	11.9	39	0.8
4차년도	4,778	100.0	4,072	85.2	543	11.4	65	1.4
5차년도	4,740	100.0	3,976	83.9	524	11.1	88	1.9
6차년도	4,756	100.0	3,933	82.7	518	10.9	114	2.4
7차년도	4,807	100.0	3,913	81.4	513	10.7	147	3.1
8차년도	4,819	100.0	3,870	80.3	515	10.7	180	3.7

2. 조사 성공 가구와 가중치

이렇게 조사에 성공한 가구들은 일정한 통계적 기법에 의해 산정한 가중치를 부여 받게 된다. 가중치란 표본조사에서 발생하는 모수추정의 편의⁸⁾(bias)를 막기 위한 보정방법 중 하

8) 모집단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진행하는 표본조사의 경우 일정한 확률에 의해 조사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지만, 조사표본이 된 대상의 조사 거절(개체 무응답, Unit non - response), 모수 추정의 정교화 등을

나로, 재정패널 조사에서 가구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가 있다. 횡단면 가중치란 매번 조사 대상이 교체되는 횡단 조사에서 작성하는 가중치로 당해연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들에게는 모두 부여된다. 종단면 가중치란 재정패널 조사와 같이 매년 동일한 조사대상을 추적하여 조사하는 종단 조사에서 작성하는 가중치로 동일한 가구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이기 때문에 새로 유입된 가구나 조사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2차년도에 추출한 원표본 가구나 분가 가구 등에는 종단면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고, 조사에 1번이라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도 종단면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단가중치가 부여되는 가구란 1차년도 원표본으로 추출된 가구들 중 모든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의미하게 된다.

<표 III-2>는 조사차수별로 계속 응답한 가구수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데이터에서 종단가중치가 부여되는 가구는 1차년도부터 조사에 응답한 가구들이다. 종단가중치 부여 가구는 조사차수마다 차이가 있는데, 1차년도의 경우 조사가 1회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단면 가중치의 의미가 없어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가 동일하고, 2차년도에는 4,396가구에 종단면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3차는 4,122가구, 4차는 3,954가구, 5차는 3,838가구, 6차는 3,754가구, 7차는 3,697가구, 8차는 3,629가구에 종단면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종단면 가중치가 부여되지는 않지만 2차년도 표본 추가로 2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연속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82.4%로 4,140가구이며, 전년도 조사에 성공하여 연속 2개년도 이상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3차년도 이후 9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III-2> 계속 조사 성공 가구

(단위: 가구, %)

조사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1차년도	5,014	4,396	4,122	3,954	3,838	3,754	3,697	3,629
	100.0	87.7	82.2	78.9	76.5	74.9	73.7	72.4
2차년도		5,039	4,720	4,517	4,376	4,282	4,217	4,140
		100.0	93.7	89.6	86.8	85.0	83.7	82.2
3차년도			4,830	4,618	4,473	4,377	4,310	4,232
			100.0	95.6	92.6	90.6	89.2	87.6
4차년도				4,778	4,617	4,510	4,442	4,357
				100.0	96.6	94.4	93.0	91.2
5차년도					4,740	4,626	4,554	4,464
					100.0	97.6	96.1	94.2
6차년도						4,756	4,676	4,579
						100.0	98.3	96.3
7차년도							4,807	4,701
							100.0	97.8
8차년도								4,819
								100.0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조사 성공 가구 특성

가. 가구원 수

재정패널 조사에서 가구원은 작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으로 다른 가구에 사는 기러기 아빠(6개월 이상),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한 경우와 원양어선이나 기숙사 등 수용시설에 있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집계된 가구당 가구원수는 <표 III-3>과 같다. 8차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수는 총 13,717명이었으며,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8명이었다. 가구원 구성에서는 4인 가구의 비율이 2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인 가구 25.0%, 3인 가구 21.4%, 1인 가구 18.2%의 순이었다. 조사차수별로 가구원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와 비교하여 8차년도의 가구원수가 1천명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도 0.2명 감소하였다. 가구원 구성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4인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3> 조사차수별 가구원수 변화

(단위 : 명, %)

조사차수	전체	평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1차년도	14,904명	3.0명	15.0	24.1	22.1	29.2	7.4	2.3
2차년도	15,318명	3.0명	14.5	22.1	21.6	31.5	8.1	2.3
3차년도	14,672명	3.0명	14.5	21.9	22.6	30.4	8.3	2.3
4차년도	14,433명	3.0명	14.7	22.6	21.8	30.6	8.0	2.3
5차년도	14,158명	3.0명	15.3	23.4	21.6	29.5	8.2	2.1
6차년도	14,033명	2.9명	15.9	23.7	22.1	28.5	7.8	2.0
7차년도	13,933명	2.9명	17.3	24.4	21.5	27.5	7.5	1.9
8차년도	13,717명	2.8명	18.2	25	21.4	26.9	6.7	1.8

나. 취업중인 가구원(조사대상년도 말 기준)

<표 III-4>는 조사 성공 가구를 기준으로 작년 말(조사대상년도 기준) 시점에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상태에 있던 가구원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원수는 5,800 ~ 6,000여명 수준으로 한 가구에서 평균 1.2명이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8차년도 기준 1.25명이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의 가구원이 취업중인 가구가 48.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명의 가구원이 취업상태였던 가구는 30.6%이었고, 취업 상태의 가구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가 16.1%로 나타났다. 4명 이상 취업상태인 가구는 1%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었다. 취업 가구원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취업 가구원수가 2명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명인 가구는 감소하고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작년 말 기준 취업상태였던 가구원이 1명도 없는 가가의 수준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난 수준이라는 것이며, 3명 이상의 가구원이 취업 중인 가구의 수준도 큰 변동은 없는 수준이었다.

<표 III-4> 조사차수별 취업 가구원수 변화

(단위 : 명, %)

조사차수	전체	평균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1차년도	5,822명	1.16명	15.4	57.0	24.2	3.0	0.4	0.0
2차년도	6,034명	1.19명	14.8	55.3	25.7	3.7	0.4	0.1
3차년도	5,921명	1.23명	14.2	53.9	27.7	3.7	0.5	0.0
4차년도	5,897명	1.23명	14.6	52.8	28.1	3.9	0.7	0.0
5차년도	5,875명	1.24명	15.7	50.2	29.3	4.0	0.8	0.0
6차년도	5,941명	1.25명	15.4	50.2	29.4	4.2	0.8	0.0
7차년도	6,073명	1.26명	15.9	48.2	30.4	4.6	0.9	0.0
8차년도	6,028명	1.25명	16.1	48.5	30.6	3.9	0.8	0.1

다. 가구원 설문지 대상 가구원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들의 개별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원 설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가구원 설문지의 조사대상이 되는 가구원을 작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으며, 소득 활동을 한 가구원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조사 대상년도 말 기준 취업 중인 가구원과 약간 다른 개념인데, 가구원 설문지 조사대상에는 취업상태는 아니지만 공적이전소득이나 1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연말에는 미취업상태였으나, 작년 12개월의 기간 동안 소득을 목적으로 취업을 한 경험이 있다면 모두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4차년도 조사 이후부터 소득활동에 포함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1~3차년도까지는 가구원 설문지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집계된 가구당 가구원 설문지 조사대상 가구원수는 <표 III-5>와 같다.

8차년도를 기준으로 총 가구원 설문지 응답대상이 되는 가구원은 7,595명이었으며, 가구당 평균 1.6명이 분포되어 있었다. 가구원 설문지의 응답대상이 한명도 없는 가구는 가구 설문지의 조사만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1.3%였고, 대부분 1명 또는 2명의 가구원의 대상이 되었다. 조사차수별로 가구원 설문지 응답대상 가구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응답대상 포함이 시작된 4차년도부터 조사대상자가 7,86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이후에는 안정화되어 매년 약 100명 이상 가구원 설문지 응답대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III-5> 조사차수별 가구원 설문지 응답대상 가구원 수 변화

(단위 : 명, %)

조사차수	가구원 설문지 조사대상자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차년도	6,962명	1.4명	2.0	63.2	29.3	4.8	0.8	-
2차년도	7,233명	1.4명	1.5	60.9	31.0	5.5	1.0	0.1
3차년도	7,017명	1.5명	1.0	59.7	32.6	5.8	0.9	0.0
4차년도	7,866명	1.5명	1.5	59.3	32.2	5.9	0.9	0.2
5차년도	7,306명	1.5명	1.5	52.8	36.9	7.4	1.3	0.1
6차년도	7,405명	1.6명	1.3	52.1	37.8	7.3	1.4	0.1
7차년도	7,573명	1.6명	1.2	51.0	38.6	7.6	1.6	0.1
8차년도	7,595명	1.6명	1.3	50.6	39.2	7.1	1.6	0.2

라. 지난 조사 이후 가구원 변동 발생 가구⁹⁾

재정패널 조사에서 조사대상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들의 변동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동으로 새롭게 조사가 되는 분가가구가 생겨나거나, 가구가 변동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동은 새로운 가구가 혼인이나 합가 등의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와 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구성한 경우와 사망하여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로 세분화되는데, 조사차수별로 이러한 가구원의 변동이 발생한 가구와 세부 유형에 따른 변동 가구원수는 <표 III-6>과 같다.

조사차수별로 매년 200~300여 가구에서 가구원의 변동이 발생하며, 조사 성공 가구를 기준으로 2% 수준이었다. 이들 가구에서 매년 분가하는 가구원은 80~120명 수준이었으며, 8차년

9) 해당 조사년도의 기준시점에 발생한 가구원 변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즉, 2차년도의 경우 조사시점인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된 분가, 사망, 전입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다만, 3차년도 조사에서 2008년 새롭게 변동된 가구원이 있다고 발견된 경우도 2차년도 변동으로 포함하였다.

도에는 101명의 가구원이 분가하였다. 사망한 가구원은 30명 내외로 8차년도에는 27명의 가구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입하여 신규로 투입된 가구원은 전출된 인원보다 많은 200명 내외로 8차년도에는 176명이 새롭게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6> 조사차수별 가구원 변동

(단위 : 가구, % , 명)

조사차수	대상 가구수 (조사성공 가구대비 비율)	전출		전입 (신규 가구원수)
		분가한 가구원수	사망한 가구원수	
2차년도	314(2.0%)	80	18	262
3차년도	327(2.2%)	115	23	247
4차년도	293(2.0%)	118	25	209
5차년도	252(1.8%)	100	22	171
6차년도	286(2.0%)	116	34	182
7차년도	219(1.6%)	105	30	118
8차년도	274(2.0%)	101	27	176

마. 가구주 및 가구원 특성

1) 가구주 특성

재정패널 조사에서 정의하는 가구주란 경제적으로 가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가구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가구를 경제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뜻한다. 가구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연장자인 가구원을 가구주로 간주하고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남편을 가구주로 간주하도록 하여 가구마다 1명의 가구주가 존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구주 정의에 따라 설정된 가구주는 경제적 사유(가구주의 실직, 소득감소 등), 가구원의 전출입 등의 사유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구주 혹은 가구주와의 관계는 동일한 가구원이라도 조사차수마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표 III-7>은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가구주가 변경된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I-7>에 따르면 조사차수마다 약 2~3%의 수준에서 가구주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8차년도 기준 84가구에서 변동이 있었다. 변동된 사유는 가구주나 가구원의 전출입에 따른 변경이 2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경제적 사유와 사망의 이유가 각각 23.8%, 응답을 거절한 경우가 14.3%, 기타의 사유가 13.1%의 순이었다.

<표 III-7> 가구주의 변경여부 및 사유

(단위 : %)

조사차수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변경되지 않음	97.3	97.2	98.1	97.9	98.2	97.5	98.3
변경됨	2.7	2.8	2.0	2.1	1.9	2.5	1.7
경제적 사유	16.7	14.6	20.4	14.9	9.1	16.0	23.8
사망	10.9	9.5	28.0	12.9	25.0	28.6	23.8
가구원 전출입	14.5	19.0	21.5	18.8	20.5	25.2	25.0
기타	56.5	54.7	25.8	51.5	9.1	7.6	13.1
모름/무응답	1.5	2.2	4.3	2.0	36.4	22.7	14.3

다음의 <표 III-8>은 조사차수별로 가구주라고 응답한 사람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로, 조사 성공가구의 현황 파악을 위해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 주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약 8:2 수준이었다. 8차년도를 기준으로 남성 가구주의 비율은 78.5%,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21.5%이었으며, 조사차수가 거듭 될수록 점차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가구주의 혼인상태의 경우 응답 범주에 차이가 있어 1~3차년도와 4~8차년도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1~3차년도에서는 기혼인 상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4차년도 이후부터는 사별이나 이혼 등을 통해 가구주가 결혼한 적은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었다. 8차년도 기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전체의 73.8%,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가 19.9%, 미혼인 가구주가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조사가 거듭될수록 증가하였는데, 1차년도와 비교하여 8 차년도 가구주의 연령은 4.7세가량 증가한 54.2세였고, 20~30대 가구주의 비율은 줄어들고, 50~60대 이상의 가구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가구주의 최종학력은 졸업 상태를 기준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가 8차년도 기준 41.5%로 가장 많았는데, 1차년도와 비교하여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비율은 증가하고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가구 주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는 상용직 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나, 무직/주부/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5차년도 이전과 이후 임금 근로자를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세분화하도록 하여 응답범위에 차이가 있었지만,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를 합한 비율이 44~46% 수준으로 1차년도와 비교해 증가한 수준이었지만 다른 차수와 비교해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8> 조사차수별 가구주 인구학적 특성

(단위 : 가구, %)

조사차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체		5,014	5,039	4,830	4,778	4,740	4,756	4,807	4,819
성별	남성	81.3	81.9	81.4	81.2	80.8	79.9	78.9	78.5
	여성	18.7	18.1	18.6	18.8	19.2	20.1	21.1	21.5
혼인상태	기혼-배우자 있음	92.0	93.2	94.0	77.8	76.8	76.4	74.5	73.8
	기혼-배우자 없음 ¹⁾	-	-	-	16.5	17.5	17.8	19.4	19.9
	미혼-결혼한적없음	8.0	6.8	6.0	5.7	5.7	5.8	6.2	6.3
(만)연령	(평균)	49.5	50.1	51.2	51.8	52.6	53.2	53.6	54.2
	29세 이하	6.1	4.7	3.4	2.9	2.8	2.8	2.8	2.8
	30대	22.2	21.4	20.0	18.6	17.1	16.0	15.1	13.7
	40대	26.7	27.8	27.7	27.5	27.0	26.3	25.8	25.2
	50대	18.7	19.3	19.9	21.0	22.0	22.9	23.6	24.3
	60세 이상	26.2	26.9	28.9	30.0	31.1	32.0	32.8	33.9
최종학력	미취학(안받음)	6.7	5.7	4.8	4.7	4.6	4.4	4.2	4.1
	고졸 미만	24.6	23.3	22.9	22.5	22.5	22.4	22.0	21.4
	고졸	34.0	34.3	34.1	33.7	33.8	33.3	33.1	33.0
	대졸 이상 (2년제 이상)	34.7	36.8	38.2	39.1	39.1	40.0	40.7	41.5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 (상용직)	42.0	44.3	44.3	44.2	38.9	39.6	40.8	40.5
	임금 근로자 ²⁾ (임시직)	-	-	-	-	6.2	4.6	6.0	4.9
	임금 근로자 (일용직)	8.3	7.5	7.1	6.9	5.9	6.5	5.2	5.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3.4	22.3	23.1	22.4	22.3	22.6	21.2	22.1
	고용원을 둔 사업주	5.5	5.2	4.8	5.2	4.0	4.6	4.7	3.9
	무급 가족 종사자	0.4	0.7	0.6	0.7	0.7	0.8	0.7	0.7
	무직	15.1	16.0	15.5	16.6	18.5	16.2	15.7	16.9
	주부/학생	5.3	4.0	4.6	4.0	3.5	5.2	5.7	5.2

주 : 1) '기혼-배우자 없음': 사별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1~3차년도의 경우 결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임금 근로자(임시직)': 1~4차년도의 경우 임시직 임금 근로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상용직 근로자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2) 전체 가구원 특성

가구 조사에 성공하여 가구원으로 확인된 전체 가구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I-9>와 같다. 이 분석 역시 조사 성공가구의 현황 파악을 위해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가구원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는데, 8차년도를 기준으로 남성 가구원은 48.4%, 여성 가구원의 비율은 51.6%이었다. 가구원들의 혼인상태의 경우 1~3차년도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4차년도 이후부터는 사별이나 이혼 등을 통해 가구원이 결혼한 적은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차년도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원은 전체의 52.8%이었고,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 가구원의 비율이 9.3%, 미혼인 가구원의 비율은 3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조사가 거듭될수록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구원들의 평균 연령 역시 증가하고 있었는데, 1차년도와 비교하여 8차년도 가구원의 연령은 3.7세가량 증가한 39.9세였다. 이러한 현상은 신규 가구의 대규모 추가가 없는 패널조사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으로 조사가 장기화될수록 표본의 마모가 진행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구원의 최종학력은 미취학자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고졸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1차년도와 비교하여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의 비율은 6.0%가량 증가하였다. 가구원들의 종사상지위는 자녀나 어린 가구원들 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주부나 학생의 비율이 4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종사상지위를 분석하면 역시 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8차년도 기준 무직 가구원의 비율이 11.7%로 높고, 그다음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10.3%의 순이었다. 무직 가구원은 1차년도와 비교해서 절반 이하로 감소한 모습으로 주부나 학생 지위로 이동하거나 상용직 근로자(임시직 포함)으로 이동한 추세로 판단되었다.

<표 III-9> 조사차수별 가구원 인구학적 특성

(단위 : %)

조사차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체		14,904	15,318	14,672	14,433	14,158	14,033	13,933	13,717
성별	남성	48.9	49.1	48.8	48.8	48.8	48.5	48.5	48.4
	여성	51.1	50.9	51.2	51.2	51.3	51.5	51.5	51.6
혼인상태	기혼-배우자 있음	60.6	60.0	60.5	52.7	52.8	53.0	52.4	52.8
	기혼-배우자 없음 ¹⁾	-	-	-	8.0	8.3	8.5	9.2	9.3
	미혼-결혼한적없음	39.4	40.0	39.5	39.3	39.0	38.5	38.4	38.0
(만)연령	(평균)	36.2	36.3	37	37.5	38.1	38.7	39.2	39.9
	29세 이하	38.6	38.8	37.9	37.3	36.5	35.9	35.2	34.6
	30대	17.2	16.6	15.8	15.0	14.5	13.9	13.4	12.5
	40대	16.8	17.1	17.4	17.4	17.6	17.4	17.5	17.6
	50대	11.2	11.3	11.9	12.7	13.4	14.0	14.6	15.2
	60세 이상	16.2	16.2	17.1	17.6	18.1	18.9	19.4	20.2
최종학력	미취학(안받음)	13.8	12.4	11.2	10.9	10.6	10.3	9.8	8.9
	고졸 미만	33.9	33.6	33.6	32.9	32.3	32.0	31.4	30.8
	고졸	28.3	29.5	29.5	29.4	29.8	29.7	29.8	30.3
	대졸 이상 (2년제 이상)	24.0	24.5	25.8	26.8	27.3	28.1	29.0	30.0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 (상용직)	21.1	22.5	22.9	23.6	21.1	21.7	22.9	23.1
	임금 근로자 ²⁾ (임시직)	-	-	-	-	4.1	3.6	4.3	4.0
	임금 근로자 (일용직)	4.3	3.6	3.7	3.4	2.9	3.1	2.7	3.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5	9.2	9.9	9.8	10.0	10.3	9.9	10.3
	고용원을 둔 사업주	2.2	2.0	2.0	2.2	1.7	1.9	1.9	1.7
	무급 가족 종사자	2.0	2.1	1.9	1.9	1.7	1.8	1.9	1.9
	무직	20.3	20.5	19.7	11.5	12.0	11.4	10.8	11.7
	주부/학생	40.6	40.1	39.9	47.7	46.5	46.3	45.6	44.4

주 : 1) '기혼-배우자 없음': 사별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1~3차년도의 경우 결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임금 근로자(임시직)': 1~4차년도의 경우 임시직 임금 근로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상용직 근로자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3)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 특성

다음은 가구원 설문지의 조사대상이 되는 가구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포함된 가구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한 가구원 중 실제 가구원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결과는 다음 <표 III-10>과 같다. 이 분석 역시 조사 성공 가구원의 현황 파악을 위해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는데, 8차년도를 기준으로 남성 가구원은 56.2%를 차지하였고, 여성 가구원의 비율은 43.8%이었다. 가구원 설문지를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혼자이었는데(평균 87.1%), 8차년도를 기준으로 71.8%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 상태의 가구원이었고,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의 비율은 15.3%, 미혼인 가구원의 비율은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2세로 가구주의 평균연령(54.2세) 보다는 약간 낮았으며, 1차년도와 비교하여 37세 가량 증가한 모습이었다. 8차년도를 기준으로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비율이 31.1%로 가장 많았고, 40대 24.5%, 50대 20.9%, 30대 16.0%, 20대 이하 7.6%의 순이었다.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가구주의 최종학력 분포와 거의 유사한 모습이었는데, 8차년도를 기준으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 41.2%로 가장 많았고, 고졸 32.4%, 고졸 미만 21.6%, 미취학(안받음) 4.8%의 순이었다.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들의 50%가 넘는 사람들은 임금 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포함)군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4차년도 이후 무급 가족종사자도 가구원 설문지 응답대상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비율이 4차년도 이후에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부 및 학생이 가구원 설문지에 응답하는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전업주부나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로, 이런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설문지에 응답해야 한다. 두 번째, 작년 한 해 동안 소득활동을 하다가 연말 시점에는 일을 그만둔 경우로,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종사상 지위의 응답에서는 주부나 학생이라고 응답하였지만, 그 전 기간에 소득을 목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해당된다. 덧붙여, 4차년도 조사시점에 주부나 학생의 가구원 설문지 응답비율이 확연히 증가한 (13.0%)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4차년도 가구원 설문문항 중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소득이 없더라도 20~30대 기혼 여성이라면 가구원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안내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III-10> 조사차수별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 특성

(단위 : %)

조사차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체	6,919	7,095	6,981	7,861	7,298	7,380	7,559	7,586
성별	남성	63.2	62.7	61.1	55.0	58.4	57.8	56.7
	여성	36.8	37.3	38.9	45.0	41.6	42.2	43.8
혼인상태	기혼-배우자 있음	85.7	86.2	87.2	76.3	73.7	73.4	71.8
	기혼-배우자 없음 ¹⁾	-	-	-	12.2	13.8	14.1	15.1
	미혼-결혼한적없음	14.3	13.8	12.8	11.5	12.5	12.5	12.9
(만)연령	(평균)	48.3	48.6	49.5	48.6	50.5	51.1	51.4
	29세 이하	11.7	10.7	9.1	9.2	8.1	8.0	7.9
	30대	22.8	22.3	21.3	25.3	19.4	18.0	17.3
	40대	24.1	25.3	25.7	23.9	25.6	25.2	24.8
	50대	14.7	15.2	16.3	16.3	18.6	19.6	20.2
	60세 이상	26.7	26.4	27.5	25.3	28.4	29.3	31.1
최종학력	미취학(안받음)	8.4	7.1	6.2	5.3	5.3	5.2	5.0
	고졸 미만	23.3	22.5	22.0	20.5	22.4	22.2	21.9
	고졸	33.1	33.4	33.4	33.6	33.3	32.8	32.7
	대졸 이상 (2년제 이상)	35.1	37.1	38.4	40.6	39.1	39.9	40.5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 (상용직)	45.0	48.2	48.0	43.3	40.8	41.3	42.1
	임금 근로자 ²⁾ (임시직)	-	-	-	-	7.9	6.8	7.9
	임금 근로자 (일용직)	9.3	7.7	7.8	6.2	5.7	6.0	4.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3	19.8	20.7	18.0	19.5	19.5	18.3
	고용원을 둔 사업주	4.6	4.4	4.1	4.0	3.3	3.6	3.6
	무급 가족 종사자	1.0	0.9	0.9	3.6	3.3	3.3	3.5
	무직	12.1	13.5	12.4	12.1	13.6	12.9	12.3
	주부/학생	7.8	5.6	6.2	13.0	6.0	6.7	7.4

주 : 1) '기혼-배우자 없음': 사별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1~3차년도의 경우 결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임금 근로자(임시직)': 1~4차년도의 경우 임시직 임금 근로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상용직 근로자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IV. 가구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

가구 조사표는 가구원 현황과 주택·자동차 현황, 연간 소득 및 소비 지출, 자산 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 지출 금액은 지출의 특성에 따라 월평균 금액과 연간 금액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 등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본 보고서에 인용한 수치는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한 데이터로 분석을 했으며 평균값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결측된 사례는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하고 분석했다.

1. 표본가구의 경제적 상황

가. 가구 평균 연소득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가구의 총소득을 각 가구원 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토지/주택/상가 및 사무실/기타),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금/보험 소득, 기타 소득(이전 소득 포함), 양도소득 등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표본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65.5%,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30.6%였다.

재정패널 표본가구 전체의 평균 연간소득을 구하기 위해 가구원 조사표에서 조사된 연간 소득의 총금액을 총 유효표본 가구수로 나누어 보았다. 이때 소득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무응답 가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재정패널 조사 표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32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근로 소득이 평균 2,864만원이었으며, 사업소득이 828.6만원으로 나타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1> 소득 유형별 가구 평균 연소득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근로소득	65.5	4371.7	2864.5
사업소득	30.6	2719.6	828.6
부동산 임대소득	토지	0.6	496.0
	주택	5.8	966.8
	상가 및 사무실	2.9	2384.1
	기타	0.0	1197.6
이자 및 배당소득	4.3	390.4	16.8
기타소득	타가구 이전소득	19.2	477.1
	노인요양특별급여	0.0	180.0
	그 외 기타소득	4.8	1191.7
양도소득 /손실	양도소득	0.3	1122.3
	양도손실	0.1	1064.3
보험급여	사회보험 급여	16.5	551.4
	민간보험 급여	4.8	384.5
정부지원	정부지원 현금소득	23.8	285.4
퇴직관련 급여	특수직 퇴직연금	2.4	2695.6
	특수직 퇴직일시금	0.1	9946.1
	개인형 퇴직연금	0.1	2299.7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1.4	6172.1
연간 총소득 ^{주)}			4328.0

주) 가구 연간 총소득은 양도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임.

나. 소득 가구원 수

전체 가구의 57.4%에서는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한 명으로 나타났고 2명인 경우가 34.6%로 1명 또는 2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IV-2> 소득 있는 가구원 수

(단위 : %)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	1.7	57.4	34.6	5.5	0.7	0.1

다. 가구 자산 및 부채

1) 금융자산

금융자산 중에는 금융기관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5.9%로 가장 커으며, 전체 표본가구의 금융자산 평균 총액은 3,367.9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V-3> 가구 금융자산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자산(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75.9	3066.0	2327.1
펀드 가입 금액	4.5	2721.3	120.2
채권 보유 금액	0.4	8187.1	28.6
주식 보유 금액	5.8	4135.0	236.1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21.1	2461.4	516.9
빌려준 돈	1.2	4664.7	56.8
기타 금융자산	1.1	7366.9	82.2
금융자산 총액			3367.9

2)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중에는 거주하고 있는 자가주택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며,

전체 표본가구의 부동산자산 평균 총액은 2억 2천 412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V-4> 가구 부동산자산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자산(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거주 자가주택 시가총액	54.9	22452.0	12326.2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12.0	26544.7	3181.8
주택 외 보유 부동산(토지)	12.7	21041.3	2628.2
주택 외 보유 부동산(건물)	3.2	45624.2	1419.8
주택 전월세 보증금(거주)	34.8	7766.7	2705.1
주택 전월세 보증금(비거주)	0.4	8511.4	30.6
비주택 전월세 보증금	3.9	3107.6	120.5
부동산 자산 총액			22412.2

3)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고가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타 자산 보유 가구 수가 적어 전체 표본가구의 평균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본가구는 평균적으로 141.8만원의 기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표 IV-5> 가구 기타자산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자산(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보유 회원권(골프, 콘도 등)	0.3	3298.6	8.7
농기계, 가축	1.6	2824.3	46.2
선박, 건설 중장비	0.3	11519.0	31.8
귀금속	10.1	342.1	34.6
기타 자산	0.3	7260.2	20.5
기타 자산 총액			141.8

4) 부채 및 연간 상환액

부채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세금·보증금 비율이 그 다음으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4,013.2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V-6> 가구 부채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부채(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1.9	7210.7	139.1
학자금 대출	1.7	1552.5	26.8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17.0	8930.9	1520.8
금융기관 대출	12.1	6263.0	758.0
신용카드 대출	1.6	1602.1	25.5
전세금/보증금	13.7	11227.5	1502.1
기타	1.6	2634.4	40.9
부채 총액			4013.2

연간 상환액은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과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상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 연평균 205.7만원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가구 부채 연간 상환액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상환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상환	1.9	576.4	11.1
학자금 대출 상환	1.7	165.9	2.8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상환	17.0	662.4	112.6
금융기관 대출 상환	12.1	606.3	73.0
신용카드 대출 상환	1.6	392.0	6.2
상환 총액			205.7

2. 가구 조사결과 요약

가. 가계 지출 현황

월간 지출 항목에서는 자동차 유류비, 주거비, 식료품 구입비, 통신비 등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가계지출 현황 : 월간 지출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대분류	기준	소분류	비율(%)	평균 금액(만원)	
자동차 유류비	월간	휘발유 비용	37.6	24.4	9.2
	월간	경유 비용	23.4	32.0	7.5
	월간	LPG 비용	5.7	26.1	1.5
	월간	CNG 비용	0.0	47.3	0.0
주거비	월간	주거비용 총금액	99.2	17.5	17.3
	월간	전기료	98.7	4.5	4.5
	월간	수도료	96.2	1.8	1.8
	월간	도시가스요금	78.9	6.3	5.0
	월간	지역난방비	11.6	6.9	0.8
	월간	난방용 유류비	15.2	6.9	1.0
	월간	연탄	1.4	5.3	0.1
	월간	LPG	16.4	2.2	0.4
	월간	기타	34.6	6.4	2.2
식료품비	월간	식료품구입비	99.4	43.3	43.0
	월간	외식비	84.0	25.1	21.0
주류비	월간	맥주,소주,양주	35.2	4.0	1.4
	월간	와인	3.1	3.8	0.1
	월간	기타 주류	10.4	1.9	0.2
담배구입비	월간	담배구입비	24.7	7.0	1.7
교통비	월간	공공교통비	83.9	8.0	6.7
	월간	차량유지비	57.8	8.0	4.6
	월간	오토바이 유지비	1.3	1.4	0.0
통신비	월간	인터넷(복합상품)	66.1	5.3	3.5
	월간	집전화 통화료	34.5	1.1	0.4
	월간	휴대폰 통화료	83.7	12.2	10.2
	월간	유료방송 시청료	37.9	1.1	0.4
	월간	기타	0.1	1.2	0.0

연간 지출 항목에서는 교육비, 의류 구입비, 보험료(민간/건강)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가계지출 현황 : 연간 지출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대분류	기준	소분류	비율(%)	평균 금액(만원)	
자동차 보험료	연간	보유 차량 보험료	60.7	75.8	44.8
	연간	미보유 차량 보험료	0.6	84.0	0.5
주택 수리비	연간	주택 수리비	5.5	506.4	28.0
문화생활비	연간	서적/음반 구입비	39.4	26.5	10.5
	연간	공연/영화 관람료	48.6	14.4	7.0
	연간	경륜/경정/경마	0.0	6.0	0.0
	연간	복권 구입	12.9	16.1	2.1
	연간	신문/잡지 구독	8.0	14.2	1.1
	연간	문화센터 수강료	13.2	88.4	11.7
가전제품구입비	연간	TV	4.6	122.1	5.6
	연간	냉장고, 김치냉장고	6.4	169.0	10.9
	연간	세탁기	3.5	81.7	2.9
	연간	에어컨	2.0	158.7	3.2
	연간	카메라 관련 제품	0.8	67.3	0.5
	연간	기타가전제품	6.2	55.2	3.4
	연간	가전제품 렌탈	7.4	37.0	2.7
통신장비구입비	연간	휴대폰	9.7	76.1	7.4
	연간	컴퓨터	3.4	105.4	3.6
	연간	기타 장비	1.0	25.7	0.3
가구구입비	연간	가구구입비	7.4	171.1	12.6
	연간	가구구입·인테리어비	1.8	673.9	11.9
	연간	악기구입비	1.1	61.4	0.7
	연간	스포츠레저장비구입비	2.5	95.7	2.4
의류구입비	연간	의류	94.4	133.8	126.3
	연간	잡화	67.9	53.0	36.0
	연간	장신구	21.9	52.5	11.5
화장품비	연간	화장품	89.2	39.4	35.2
	연간	이미용비	97.9	35.9	35.1
여행레저비	연간	여행 및 숙박료(국내)	41.3	111.1	45.9
	연간	여행 및 숙박료(국외)	11.1	385.0	42.8
교육비	연간	공교육비(등록금 등)	41.0	430.7	102.9
	연간	공교육비(급식비)	41.0	100.1	11.7
	연간	기타 공교육비	41.0	69.6	11.9
	연간	가구원 사교육비	41.0	647.5	181.8
	연간	비가구원 공교육비	0.7	1393.2	10.1
	연간	비가구원 사교육비	0.2	696.0	1.5
보건의료비	연간	한약재	9.7	63.0	6.1
	연간	성형수술비	0.9	234.9	2.0
	연간	치과진료비	25.1	142.5	35.8
	연간	입원치료비	13.1	259.3	34.0
	연간	외래진료비	88.9	35.1	31.2
	연간	약제비	90.2	23.4	21.1
혼인장례이사비	연간	혼인비용	2.3	1582.1	35.8

연간	혼인 가구구입비	1.2	657.8	7.9
연간	혼인 가전제품 구입비	1.2	699.8	8.5
연간	혼인 주택구입비	0.2	13955.2	33.1
연간	혼인 전세금(보증금)	0.8	6815.5	52.6
연간	장례비용	1.4	1088.7	15.0
연간	이사비용	9.3	139.2	13.0
기부금	연간	기부금	27.4	161.5
가사도우미서비스	연간	가사도우미서비스비	1.3	395.0
민간보험료	연간	민간보험료	79.5	525.3
건강보험료	연간	건강보험료	74.9	156.6
				117.2

나.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

타가구로 이전 지출이 있는 가구가 22.4%였고, 반대로 타가구로부터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는 23.8%로 조사됐다. 경조사 지출의 경우 해당가구 평균 금액은 86.7만원, 경조사 소득의 해당가구 평균 금액은 1,084.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대분류	기준	소분류	비율(%)	평균 금액(만원)	
이전소득 지출	연간	타가구 이전지출	22.4	420.4	94.2
	연간	타가구 이전소득	23.8	523.0	124.3
경조사	연간	경조사 지출	85.0	86.7	73.7
	연간	경조사 소득	4.9	1084.8	53.5

다. 상속, 증여

타가구로부터 상속받은 적이 있는 가구는 0.5%, 가구원이 상속을 해준 적이 있는 가구는 0.1%로 나타났다. 증여의 경우 가구원이 증여한 가구는 0.4%, 타가구로부터 증여받은 가구는 0.3%로 상속, 증여 모두 해당 가구 수는 매우 적었다.

<표 IV-11> 상속 및 증여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대분류	기준	소분류	비율(%)	평균 금액(만원)	

상속	연간	타가구로부터 상속받은 금액	0.5	12126.7	59.9
	연간	가구원이 상속해준 금액	0.1	9669.7	9.9
증여	연간	가구원이 증여한 금액	0.4	17340.2	66.6
	연간	타가구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0.3	10305.6	30.8

라. 정부 지원 현금 · 현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3.6%였으며, 연간 평균 수령액은 420.3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지원금 중에서는 0-5세 지원금이 평균 338.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IV-12> 정부 지원 현금 수급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연간	3.6	420.3	15.1
자녀양육 지원금	출산	1.9	71.5	1.3
	0-5세	11.6	338.2	39.3
	6세 이상	1.5	159.1	2.3
기타현물지원	연간	0.9	45.2	.4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1.3%였으며 월평균 본인부담액은 37.4만원으로 조사됐다.

<표 IV-13>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

(단위 : %, 만원)

항목		수급가구(%)	본인부담액 (해당 가구, 만원)	특별현금급여 (해당가구, 만원)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	가구원	1.3	37.4	15.0
	비가구원	0.3	138.6	0.0

마. 근로장려금, 유가보조금 및 기타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은 가구의 비율은 2.6%, 평균 금액은 126.1만원이었으며, 유가보조

금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1.6%로 수령 가구의 평균 금액은 약 262.7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V-14> 근로장려금, 유가보조금 및 기타 환급금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근로장려금	1.1	96.0	1.1
유가보조금	1.6	262.7	4.1
연말정산 환급금	24.1	70.1	16.4
종합소득세 환급금	2.6	126.1	3.0

바. 출산

출산 관련 의료기관 지출비가 발생한 가구는 2.0%로 평균 130.3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 조리원 이용비는 154.1만원, 산후 도우미 이용비는 107.3만원 가량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출산 관련 지출비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의료기관 지출비	2.0	130.3	2.6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출비	0.0	150.0	0.1
산후조리원 이용비	1.2	154.1	1.8
산후도우미 이용비	0.5	107.3	0.5

V. 가구원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

1. 가구원 조사결과 요약

가. 경제활동 상태 (2015년 5월 1일 기준)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 중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비율은 77.7%로 나타났고, 그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69.3%,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30.7%로 나타났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정부지원금 등이 있을 경우 가구원 조사표의 조사대상이 되므로 소득활동이 없는 가구원이 조사된 경우는 22.3%로 나타났다.

<표 V-1> 소득활동 현황

(단위 : %)

소득 활동함(%)		소득활동 하지 않음(%)	
77.7		22.3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구직(%)	비구직(%)
69.3	30.7	7.6	92.4

<표 V-2> 경제활동 상태

(단위 : %)

구분	세부항목	%
종사상 지위	상용직 근로자	52.5
	임시직 근로자	9.6
	일용직 근로자	7.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3.1
	고용원을 둔 사업주	3.7
	무급 가족 종사자	3.9
근무시간 형태 (임금근로자)	전일제	93.4
	시간제	6.6

나. 연간 소득

가구원 개인 연간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소득 가구원의 평균 연간소득은 2,760.5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종류별로는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이 3,143.4만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V-3> 가구원 연간 소득

(단위 : %, 만원)

항목	소득 가구원		조사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근로소득	57.9	3143.4	1817.5
사업소득	20.9	2537.3	527.7
부동산 임대소득	토지	0.3	583.8
	주택	3.7	900.1
	상가 및 사무실	1.7	2949.6
	기타	0.0	887.0
이자 및 배당소득	2.6	360.2	9.3
기타소득	타가구 이전소득	13.8	472.8
	노인요양특별급여	0.0	180.0
	그 외 기타소득	3.4	1104.8
양도소득 /손실	양도소득	0.1	924.6
	양도손실	0.1	1529.3
보험급여 /정부지원 /퇴직급여	사회보험 급여	11.0	506.0
	민간보험 급여	3.5	391.4
	정부지원 현금소득	20.6	218.0
	특수직 퇴직연금	1.5	2672.4
	특수직 퇴직일시금	0.1	11896.5
	개인형 퇴직연금	3.5	2724.7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35.5	6225.6
연간 총소득*			2760.5

* 연간 총소득은 양도 손실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

다. 연금/보험 납부 금액

소득 가구원 중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36.3%로 가장 많았고, 납부 가구원의 연간 평균

금액은 129.6만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는 43.9%, 지역 가입자는 18.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고용 보험료는 가구원 중 35.8%가 납부하였다. 민간보험에서는 보장보험 가입자가 6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V-4> 공적연금·민간보험 납부 현황

(단위 : %, 만원)

구분	세부항목	납부 가구원		조사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36.3	129.6	46.8
	지역 가입자	9.3	154.8	14.4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0.6	104.4	1.2
특수직역 연금		4.7	301.2	14.4
건강보험료	사업장 가입자	43.9	118.6	52.0
	지역 가입자	18.7	133.4	24.8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35.8	21.9	7.8
민간보험	퇴직연금	0.7	311.5	1.9
	연금저축	4.1	424.6	17.4
	연금보험	7.6	362.5	27.5
	보장보험	64.9	216.5	140.5
	저축보험	3.2	353.4	11.5
	자동차보험	41.1	69.7	28.7

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신용카드를 보유한 가구원의 비율은 60.1%이고 보유 가구원의 국내 평균 사용금액은 1,141.1만원으로 나타났고, 직불카드를 보유한 가구원의 비율은 33.2%, 국내 평균 사용 금액은 439.8만원이었다. 연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101.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V-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현황

(단위 : %, 만원)

구분	세부항목	보유 가구원		조사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신용카드	국내사용액	60.1	1141.1	682.9
	해외사용액		5.2	3.1
	전통시장 사용액		19.8	11.9
	대중교통 사용액		23.6	14.1

직불카드	국내사용액	33.2	439.8	145.5
	해외사용액		1.2	0.4
	전통시장 사용액		5.7	1.9
	대중교통 사용액		6.0	2.0
현금영수증	사용액	-	101.5	101.5

마. 소득 공제 현황

1) 소득세 납부 유형

소득 가구원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의 비율은 40.3%(근로소득 연말정산+동시 신고)였고, 종합소득 신고를 한 가구원의 비율은 10.9%(종합소득세 신고+동시 신고)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가구원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았다.

<표 V-6> 소득세 납부 유형

(단위 : %, 만원)

구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한 응답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한 응답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동시 신고	해당 없음
%	39.9	10.5	0.4	49.2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의 공제내역과 결정세액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 중 공적연금 보험료를 공제 받은 가구원의 비율이 85.2%였고, 평균 금액은 152.5만원이었다. 보험료 공제를 받은 비율은 79.9%였고, 평균 금액은 152.6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받은 비율은 55.3%였으며, 평균 금액은 241.1만원이었다.

<표 V-7>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단위 : %, 만원)

구분	세부항목	공제 가구원		연말정산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85.2	152.5	129.9
	보험료	79.9	152.6	122.0

	보장성 보험료	59.8	11.2	6.6
의료비	의료비	18.0	29.1	5.1
교육비	교육비	18.6	40.2	7.3
주택자금	주택자금	8.8	200.8	17.6
	주택마련저축	3.7	42.7	1.6
	월세	1.1	26.8	0.3
기부금	기부금 소득공제	3.7	213.6	7.3
	기부금 세액공제	24.0	16.1	3.8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1.9	50.8	0.8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0.0	15.6	0.0
	퇴직연금	0.5	29.0	0.1
	연금저축	12.5	34.8	4.4
투자조합출자 등	투자조합출자 등	0.0	0.0	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5.3	241.1	131.5
우리사주조합출자	우리사주조합출자	0.5	333.1	1.5
기타	기타 소득공제	1.1	52.0	0.6
	기타 세액공제	1.0	76.2	0.8
결정세액	결정세액	100.0	125.8	125.8

주) 해당자 비율과 전체 평균금액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출. 공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결정세액 계산에서는 세금이 0원인 케이스를 포함시켜 계산함.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 중 환급을 받은 가구원의 비율은 22.3%였고, 추가 납부를 한 가구원의 비율은 6.1%였다. 환급금 지급 절차에 대해 간편하다는 응답이 58.9%(매우 간편+대체로 간편), 불편하다는 응답이 4.9%(다소 불편+매우 불편)으로 조사되었다. 연말 정산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44.9%(매우 만족+대체로 만족)으로 나타났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14.5%(다소 불만족+매우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대해 적게 하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8.0%로, 많이 하고 많이 돌려받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 41.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8>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

(단위 : %, 만원)

구분	해당 가구원		연말정산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환급 받은 금액	22.3	61.3	13.5
추가 납부한 금액	6.1	61.6	3.7

<표 V-9>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절차 편의성

(단위 : %)

구분	매우 간편	대체로 간편	보통	다소 불편	매우 불편
%	9.9	49.0	26.1	4.1	0.8

<표 V-10>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

(단위 : %)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응답
%	1.3	43.6	39.7	9.3	5.2	1.0

<표 11>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식 선호도

(단위 : %)

항목	분포
매달 원천징수를 많이 하고, 연말정산시 많이 돌려받는 방식	41.0
매달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연말정산시 적게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방식	58.0
모름/무응답	1.0

3) 종합소득공제 현황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가구원 중 33.0%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공제 받았고 평균 금액은 154.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준공제를 받은 가구원의 비율은 61.2%였고, 평균 금액은 7.3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V-12> 종합소득신고 공제 현황

(단위 : %, 만원)

구분	세부항목	공제 가구원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33.0	154.2	50.9
기부금	기부금 소득공제	2.9	115.8	3.0
	기부금 세액공제	2.5	19.8	0.4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1.1	54.8	0.6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0.1	60.0	0.1
	퇴직연금	0.1	15.0	0.0
	연금저축	3.2	35.2	1.1
투자조합출자 등	투자조합출자 등	0.0	0.0	0.0
표준공제	표준공제	61.2	7.3	4.5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0.0	0.0	0.0
기타	기타 소득공제	4.7	237.4	11.2
	기타 세액공제	13.3	9.3	1.2
성실사업자대상 공제 항목	의료비	0.3	22.0	0.1
	교육비	0.3	215.4	0.6
결정세액	결정세액	100.0	69.2	69.2

* 해당자 비율과 전체 평균금액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출. 공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결정세액 계산에서는 세금이 0원인 케이스를 포함시켜 계산함.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환급 받은 가구원의 비율은 2.2%였고 평균 금액은 106.1만원으로 나타났고, 추가 납부한 가구원의 비율은 2.3%로 조사되었고, 평균 금액은 142.9만원이었다. 종합소득세환급금 지급 절차에 대해 환급받은 가구원의 53.8%(매우 간편+대체로 간편)이 간편하다고 응답하였고, 2.8%(다소 불편+매우 불편)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13>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

(단위 : %, 만원)

구분	해당 가구원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환급 받은 금액	2.2	106.1	2.3
추가 납부한 금액	2.3	142.9	3.0

<표 V-14>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절차 편의성

(단위 : %)

구분	매우 간편	대체로 간편	보통	다소 불편	매우 불편
분포	5.6	48.2	32.7	2.3	0.5

2. 가구원 인식 조사

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

현행 조세제도에 대해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산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응답이 11.2%,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응답이 8.6%로 조사되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45.3%(대체로 낮은 수준+매우 낮은 수준),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42.1%,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12.1%(매우 높은 수준+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비슷한 그룹과 비교하여 본인의 세부담에 대해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52.1%였고,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36.8%(매우 높은 수준+대체로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10.7%(대체로 낮은 수준+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15>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항목	분포
현행 조세제도 평가	소득 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이다	4.7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50.5
	중산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11.2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8.6
	잘 모르겠다	24.9
본인 납부 세금 대비 정부 혜택 평가	매우 높은 수준	0.5
	대체로 높은 수준	11.6
	적당한 수준	42.1
	대체로 낮은 수준	30.9
	매우 낮은 수준	14.4
	모름/무응답	0.5
소득 유사 그룹 대비 본인 세부담 평가	매우 높은 수준	3.9
	대체로 높은 수준	32.9
	적당한 수준	52.1
	대체로 낮은 수준	7.3
	매우 낮은 수준	3.4
	모름/무응답	0.5

나.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현재 복지수준에 대해 적당하다는 응답이 60.7%로 나타났으며, 증세 시 바람직한 방법으로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56.8%로 조사되었다. 증세가 불가피할 때 세금 부담에 대해 추가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50.6%였고, 바람직한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50.2%로 나타났다.

<표 V-16>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항목	%
현재 복지수준 적정성 평가	그렇다, 적당하다	60.7
	아니다,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13.4
	아니다,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25.4
	모름/무응답	0.5
복지 확대 시 재원 조달 방안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	27.5
	다른 부문의 재정지출 축소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	24.9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며 국가부채를 통해서 충당	23.4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주요세목 세율조정을 통한 증세	23.2
	모름/무응답	1.0
증세 시 바람직한 방법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34.0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	56.8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인상해야 한다.	6.5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1.9
증세 불가피 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추가 부담할 의향이 없음	50.6
	현재 세금의 5% 미만 추가 부담 의향	36.4
	현재 세금의 5-10% 추가 부담 의향	10.2
	현재 세금의 10-15% 추가 부담 의향	2.5
	현재 세금의 15% 이상 추가 부담 의향	0.3
바람직한 복지 정책 방향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	14.2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되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 제공	50.2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제공	35.1
	모름/무응답	0.5

다. 세 부담과 복지 수준 비교 평가

현재 우리나라의 세 부담과 복지 수준에 대해 중부담과 중복지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높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세 부담과 복지 수준도 중부담과 중복지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17> 세 부담과 복지수준 평가

(단위 : %)

구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수준(%)	바람직한 수준(%)
저부담 - 고복지	3.2	12.7
중부담 - 고복지	6.3	17.4
고부담 - 고복지	1.6	3.4
저부담 - 중복지	11.2	18.3
중부담 - 중복지	27.2	37.7
고부담 - 중복지	10.5	2.3
저부담 - 저복지	10.7	3.7
중부담 - 저복지	15.8	3.0
고부담 - 저복지	12.9	0.9
거절	0.6	0.6

라. 신뢰 및 주관적 건강 상태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로 대체로 믿을 수 있다는 의견이 42.1%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부 관료가 국민 이익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와 국세청과 세무 공무원의 세정 집행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각 39.2%와 40.5%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V-18> 신뢰 및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 %)

구 분	항목	분포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는 정도	매우 믿을 수 있다	0.9
	대체로 믿을 수 있다	42.1
	보통이다	36.1
	대체로 믿을 수 없다	15.9
	매우 믿을 수 없다	4.6
	모름/무응답	0.5
정부 관료의 국민 이익 및	매우 그렇다	0.7

경제발전 기여	대체로 그렇다	25.7
	보통이다	39.2
	대체로 그렇지 않다	26.2
	매우 그렇지 않다	7.7
	모름/무응답	0.5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의 공정한 세정 집행	매우 그렇다	0.8
	대체로 그렇다	25.4
	보통이다	40.5
	대체로 그렇지 않다	26.7
	매우 그렇지 않다	6.1
주관적 건강 상태	모름/무응답	0.5
	매우 건강한 편이다	7.3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55.2
	보통이다	21.8
	대체로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0.8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5
	모름/무응답	0.4